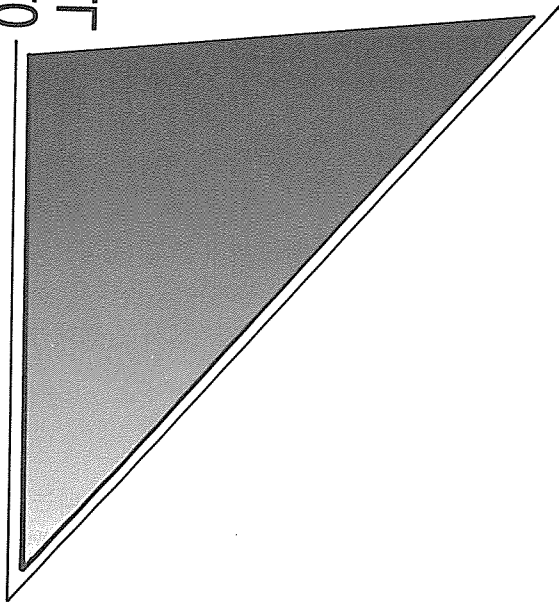


제7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곱번째인 91년도에는 전국에서 총1천5백31명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편, 우수2편,佳作5편, 입선10편, 장려30편등 총48편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본지는 앞으로 입선이상 18편을 4회에 나누어 게재키로 하고 이번호에는 최우수작과 우수2편,佳作1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최우수

고마운 우유

박 영 선

(전북 순창 시산국민학교 4-1)

둘째 시간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내배는 자꾸만 ‘꼬르륵’ 하고 신호를 보내온다. 둘째 시간이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간식 시간을 내배는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일 둘째 시간 후에 우유 간식을 실시한다. 이 때가 되면 아침에 먹은 밥이 다 소화되어 배가 고프는데 이 때 한 개씩 먹는 우유는 그야말로 꿀맛이다. 뱃속으로 들어가면 얼마 안돼서 배고픔이 싹 가셔버려 세째 시간, 네째 시간을 거뜨하게 보낸다.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맛있는 도시락을 깨끗하게 청소해 버리는 점심 시간이 오는 것이다.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마시는 우유와 농촌의 어린이들이 마시는 우유는 똑같지만 도시 애들보다 더 많은 시장기를 느끼는 우리들이 마시는 한개의 우유는 그애들 보다 몇곱절 꿀 맛 나는 **고마운 우유**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유를 먹는 간식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세째 시간부터는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도시락 생각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을 한 마디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점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만을 애타게 기다리느라 세째 시간, 네째 시간의 공부는 영망이 되었을 것이다.

사실 예전에 우유 간식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참을성이 부족한 아이들이나, 개구장이 몇몇 아이들은 점심 시간전에 선생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도시락을 말끔히 비우고 점심 시간에는 친구들의 도시락을 얻어 먹거나 더 짓곳은 아이들은 훔쳐 먹는 경우까지 있었다.

” 그런데, 아주 짝값으로 전교생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마시게 된 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되었고 대신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간식 시간만을 애타게 기다리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나같이 덩치가 큰 아이들은 한 개의 우유로는 어렵도 없어 두 개를 신청해서 먹고 있는데도 간식 시간 때 짹이면 아이들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어서 빨리 우유를 집어 넣으라는 신호인 것이다. 그래서, 굳이 내배에서 울려오는 ‘꼬르륵’ 소리를 듣지 않아도 교실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여기 저기에서 울려대는 ‘꼬르륵’ 소리를 저절로 듣게 되면

‘이제 우유 간식 시간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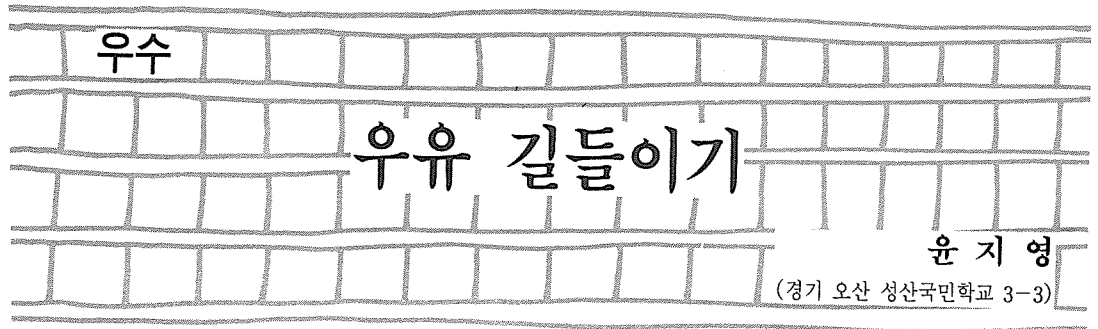
사실 우리들 대부분이 저마다 ‘꼬르륵’ 시계를 차게 된 데는 그 까닭이 있다. 이곳은 겨울을 빼놓고는 일이 많은 농촌이라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어린이들까지도 일찍 일어난다. 그래야 아침밥을 일찍 먹고 치울

수 있어 더 많은 일들을 해낸다. 이처럼 새벽밥 비슷한 아침밥을 먹고서 먼 길을 걸어 학교에 오면 점심 시간까지 버티기가 너무 힘든 배꼽 시계는 자꾸만 ‘꼬르륵’ 소리를 울려대기에 바쁘다.

그런데, 다행히 우유를 마시는 간식 시간을 갖게 된 후부터는 배꼽 시계가 점심 시간까지 얌전해 진다.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마시는 우유와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시는 우유는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으로 값도 똑같지만 도시의 아이들 보다 더 많이 시장기를 느끼는 우리들로서는 학교에서 간식 시간에 마시는 한 개의 우유가 그애들 보다 몇곱절 꿀 맛 나고 고소한 고마운 우유인 것이다.

나는 이 고마운 우유맛을 오래도록 느끼고 싶어 우유를 다 마신 후에도 아쉬운 마음으로 빈 껍질을 열심히 빨면서 내일의 간식 시간을 또 기다린다.



엄마젓을 제일 좋아했던 아기사질, 불이 통통하게 살찐 어렸을때 사진을 보면 웬지 축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울어서 ‘울보’라고까지 별명을 붙였더니 노래를 잘 하려고 울었을까?

똥이 지나고부터 엄마는 그냥 찬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점점 자라면서 부터는 우유를 먹기 싫어했다.

내가 여섯살때 일이었다. 유아원에 다녔는데 엄마가 챙겨주는 우유는 정말먹기 싫어 죽을 지경이었다.

속이 메스꺼워 견딜수가 없으니까 계속 먹지 않았다. 엄마는

“우유에는 단백질등 영양소가 많아 피부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우리 지영이 미스코리아가 못되겠다.”고 놀리셨다.

동생 지혜는 언제나 우유 대장이었다. 꿀꺽꿀꺽 잘 먹는 동생이 부러웠다.

나는 1학년때 까지 우유를 거의 먹지 않았다. 2학년때 부터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했는데 어느때 부터인가 우유가 고소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맛 좋은 우유를 잘 먹게 되었다. 엄마는 신기해서 마실때마다

“여름철에 땀흘리고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한컵의 찬 우유를 마시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 것이지…… 싫어하는 음식도 다 길들이기 나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착하다고 하셨다.

어느날 우연히 TV에서 젖소에게 젖을 짜는 장면을 보고 왜 젖을 짜느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응 젖을 짠것을 공장에 가지고 가서 살균을 하고 위생적으로 해서 종이 봉지에 담아 파는 거란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럼 우유가 소젖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럼 여태 그것도 몰랐니?” 하셨다. 나는 그 동안에 먹은 우유가 다 올라 올것 같았다.

또 우유가 싫어졌다.

여주에 살때 근처에 젖소를 키우는 곳이 있었다.

지저분한 곳에 누워서 음메 울던 그소의 젖이 왜 그렇게 큰지 이제야 알것 같았다. 어쩌면 그 속에 우유가 그렇게도 많을까? 송아지도 그젖을 빨아 먹었을텐데 나도 그 젖을 먹었다니 생각할수록 메시꺼웠다.

엄마는 웃으시며 “깨끗히 살균한 우유는 우리몸을 튼튼히 해주고 살결도 곱게 해주는 식품인데 지영인 뭘 몰라요” 하시면서

“너의 이빨과 뼈를 튼튼히 하는데는 뭘니 뭘니해도 칼슘이 많이 든 우유와 멀치같은 식품들이란다.” 학교에서 배운것도 있고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옳게 느껴졌다. 특히 여름철 땀흘리고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찬 우유를 마시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것인지 모른다. 엄마는 지금도

“지영아 소젖을 먹었으니 젖소에게 엄마라고 하렴.” 하고 놀리신다. 그러면 난 옛날 생각을 하고 깔깔 웃는다. 싫어하는 음식도 다 길들이기 나름 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우유를 많이 먹어서 미스코리아 윤지영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수

나는 우유 대장

문선미

(경북 영주 남산국민학교 6-4)

나는 우유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유때문에 생긴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살때 일입니다. 그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선미야, 요 앞 슈퍼에 가서 설탕 좀 사올래?” 하고 엄마가 물으셨 습니다.

나는

“응, 알았어” 하고 대답하고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슈퍼는 우리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참 달려갔습니다.

슈퍼에 들어가서 설탕을 사려다가 우유를 먹고 있던 아이를 보았습니다. 나는 우유를 무척 좋아하고 뛰어와서 목도 몹시 말랐기 때문에 우유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설탕은 어디있어?” 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아차’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우유가 먹고 싶어 우유를 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아니 애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하고 야단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때 아빠가

“무슨 일이야?” 하시며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애가 글썽 설탕 사오라는 돈으로 우유를 사왔다지 뭐예요. 우유가 먹고 싶었다나 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애들이 그럴수도 있지 그것 가지고 야단을 치고 그래 애들 기죽게” 하고 내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돈 줄테니 설탕을 사오도록 해라. 알았지” 나는 곧 슈퍼로 달려가 설탕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우유를 먹었습니다.

나는 3컵이나 우유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와 우유돼지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왜 돼지야 나는 사람이니까 우유 대장이지 안 그래” 하고 말했더니 가족모두 웃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유를 무척 좋아합니다. 나는 우유 대장이니까요!

“슈퍼에 들어가 설탕을 사려다 우유를 먹는 아이를 보니 우유가 먹고싶어 엄마의 심부름은 잊은채 설탕 대신 우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엄마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가작

나의 건강과 우유

임택순

(서울 연신국민학교 6-5)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때 부터 1.4kg의 미숙아 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해도 칠삭둥이는 사람들에게 신기한 존재로 느껴졌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살가망이 없다는 저를 안고 울고 또 우셨답니다. 하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성을 다바쳐 눈물과 한숨속에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건강과 관련된 아주 고마운 우유가 숨어 있답니다.

울무와 분유, 각종 좋다는 것은 모두 먹여 보았지만 제가 가장 잘 먹던것은 우유였다고 합니다.

우유병에 넣어주면 단숨에 “꿀꺽꿀꺽” 먹어 치웠기에 지금도 한자리에 앉아 1000ml는 먹어야 양이 찬답니다.

그런 덕택에 나의 건강은 미숙아에서 정상아를 부러워 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튼튼하고 건강하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가끔씩 저놈 사람구실 못할줄 알았는데 무얼 먹고 저렇게 클까? 하시며 “미꾸라지 용됐다”고 하십니다.

“모두가 우유 덕택이지요” 하며 저는 말끝을 받아넘기며 한바탕 웃곤 합니다.

학교에서 우유가 먹기싫어 버리는 친구들의 몫은 모두 나에게로 돌아와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유가 없기 때문에 못먹는 사람도 있는데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을 보면 화가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하여도 저에게 우유를 주시려고 못잡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족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자식의 건강을 위하여 뒷받침 해주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한방울의 우유도 저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자식의 건강을 바라보며 희망에 찬 내일을 바라보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저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우유를 다정한 벗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부모님에게 삶의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들릴수가 있지만 나에게에는 이세상 제2의 부모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건강할때 지켜야 되듯이 나의 몸은 나 자신만의것도 아니고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일꾼이기에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며 나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준 고마운 우유야 “나뿐만이 아닌 이세상에서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겐 언제든지 부담없이 다정한 벗이 될수 있도록 찾아가 주려무나”

밝고 반가운 모습으로 말이다.

나의 벗 우유에게 택순이가 띄웁니다

“**학교에서 우유가 먹기 싫어 버리는 친구들의 몫은 모두 내 차지이지요**
우유가 없어 못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유를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